

제 24 회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부산 직할시대표 : 부산농악



일 시 : 1983년 10월 21일 ~ 23일

장 소 : 안동 시민운동장

출연단체 : 십달 부산농악보존회

## 부 산 직 할 시

## 人事말씀



由緒깊은 安東市에서 우리 祖上의 멋과 열이 담긴 民俗의 饗宴이 베풀어지게 된데 대하여 眞心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옛부터 韓國人은 自然에 歸衣하고 아울러 自然을 人間世界에 끌어들이어 自然과 同和해 살아 오면서 年中 철철이 安配된 歲時風俗에 우리의 예지를 담아 멋이 넘치는 많은 民俗들이 산하 곳곳에 그 玲瓏한 모습들을 남겨 왔읍니다.

이번 開催되는 이 民俗의 祭典은 傳統文化의 主體性 回復과 繼承發展의 次元에서 뿐만아니라 우리의 生活이 現代化되고 産業化됨에 따라 自然回復과 人間回復의 次元에서도 매우 값진 일이라고 生覺합니다.

今般 釜山은 伽倻와 新羅 洛東江의 精氣가 토해낸 由緒깊은 “釜山農樂”을 試演하게 되었읍니다.

本大會를 通하여 우리 고장의 個性있는 傳統 民俗을 感想하고 原形保存에 힘쓰이 바로 先進 祖國 創造를 爲한 主體性있는 民族文化 暢達의 契機가 되리라 믿읍니다.

이 뜻깊은 祭典을 爲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安東市民 여러분께 깊은 感謝 드리며 아울러 傳統文化에 對한 感想안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人事에 가름합니다.

1983. 10.

釜山農樂保存協會

理事長 金 許 男

## 농 악 해 설

농악은 우리민족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민중음악으로 처음에는 제천의식에서 풍물을 치며 노래불러 신에게 제사드리던 것이었다.

또한 농경작업의 고달픔을 조금이라도 잊고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풍물을 치면서 리듬에 맞추어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차츰 오락성과 예술성이 가미되었다고 하겠다. 농악은 각 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특색이 있었으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지역간의 교류가 잦고 방송매체를 통해 널리 퍼짐으로 해서 그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부산아미농악의 특징은 음력정초에 가가호호 돌아가며 고사지내고 복을 빌어주는 형태의 걸립농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삭모돌리기등의 기능도 우수하지만 버꾸놀이의 기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또 네 북이 일치되어 배지기로 대북을 안고 넘는 기교야말로 더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 타 농악에 비해 박자가 느린 4박자로 굿거리장단이 많고 춤이 많이 삽입되어 있으며 상쇠와 부쇠 그리고 소고쟁이들만 삭모를 쓰고 나머지 징, 북, 장고쟁이와 그밖의 놀이꾼들은 고깔을 쓰고 있다.

부산농악은 시내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놀이가 행해져 왔으나 일제하의 민족문화말살 정책으로 고난을 겪어오다가 1953년 정초에 정식으로 아미농악단이란 명칭으로 발족하여 전국적인 각종 경연 대회에서 60여차례나 입상경력을 갖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개인기가 우수하여 한결 돋보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각 판굿 해설

1	모듬굿	홀어진 농악단원들을 집합시키기 위하여 상쇠가 단마치로 울리면 전원이 모이게 된다. 전원이 다 모이면 2채 3채로 잇달아 넘어간다.
2	길굿	길군악은 행진굿이다. 행진굿에는 7채가락으로서 농기를 선두로 상쇠 이하 전원이 종대 행진을 한다.
3	인사굿	출연하면 관중석에 대하여 인사를 하게된다. 인사굿에는 3채와 5채가 연속되며 이어서 8채가락으로 넘어간다.
4	맞춤굿	맞춤굿은 인사가 끝난후 정돈을 하는 것이다. 맞춤굿 3채로 정돈이 끝나면 뒤로 돌고 왼 방향으로 다시 돌려 혼련하는 과정에서 7채로 연결된다.
5	문굿	문굿에는 여러가지 문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당산문 성문 관문이 있다. 농악에서는 남의 집 문을 들어서면서 문굿을 하게 된다. 2채와 3채로 이어지며 7채로 끝난다.
6	오방진법	오방진법은 예로부터 마당 네 군대를 東西南北으로 나누어 마당의 잡귀를 몰아내는 굿이다. 마지막에는 中央으로 모여서 징을 세번 울리고 다시 풀며 나온다. 4채, 8채, 10채로서 끝난다.
7	마당굿	일종의 마당굿 놀음이다. 늦은 춤 장단으로부터 덧베기 가락으로 이루어 지며 다양한 묘기가 판굿에 있다 하겠다. 채로는 4, 8, 12채로 이루어진다.
8	호호굿	흥겨운 소리굿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며 전 단원들이 "호호" 소리를 지르며 갈 지자로 뛰면서 원을 돈다. 마지막 8채가 들리면 버꾸잼이는 반대로 돈다.
9	우물굿	오방진법이 끝난 후 다시 전 단원들을 점호하여 상쇠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인원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놀이가 시작되면 상쇠가 가운데서 유도를 한다. 3채, 6채, 12채이다.
10	다드래기굿	춤 도드리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쉬우나 그와는 다르다. 3채로 시작하여 단모리 7채가락으로 넘어가며 전체 단원들이 일사 불란하게 일렬로 서서 몰아치는 가락이다.
11	농사풀이	농사 풀이라고 하는 것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기를 앞세우고 농부의 노작과 정을 나타내며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고 벼베고 타작하는 과정을 흥내내며 1, 2, 5로 나타낸다.
12	풍년굿	농사를 짓고 보니 시절은 호시절이요, 곳곳마다 풍년이라 농부들이 흥겨운 풍년가를 부르게 되니 춤이 저절로 추어지는 듯한 장단으로 풍년굿에 사용되는 것이 덧베기 4채, 8채가락이다.
13	버꾸놀음	버꾸는 소고보다 조금 큰 것이다. 소고는 단순한 약기라지만 그 묘한 기교는 춤을 위주로 한것이다. 진정한 버꾸놀음 즉 버꾸춤을 계승하여 소고 굿은 부산에서도 덧베기 장단가락 4채, 8채 넘어간다.
14	개인놀이	상쇠로부터 버꾸, 상모놀이, 내북, 장고놀이등 다채로운 개인놀이가 시작된다. 농악놀이의 표현방법은 부산농악의 북춤 놀이와 설장고 놀이이며 개인의 특기인 묘기를 재현한다.
15	열두발상모	12발이 되는 긴 상모로 노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각 지방마다 12발 상모라고 하는 놀이가 있으나 사실상 12발에는 모자라며 이 놀이에서는 정확한 12발을 2, 4, 8채로 돌리고 있다.

---

---

## 출연자 명단

대 표 : 이사장 김 허 남

상 식 : 김 한 순

종 식 : 정 우 수

징 : 엄정섭, 김동준, 윤만수

대 북 : 정윤화, 이용환, 백종근, 백진석

장 고 : 김병기 강정수 이부산 노태상

소 고 : 이용식, 조갑용, 김종대, 이성근,  
이한진, 권명수, 김종기, 이준용

들 벽 고 : 김재현, 김영대, 김성초, 허동찬,  
김종구, 강필선, 최이홍, 최홍길

호 적 : 정 장 동

양 반 : 유 성 북

포 수 : 오 일 남

하 동 : 김 종 욱

각 시 : 김 호 성

영 기 : 신석운, 이병일

기 수 : 정동찬, 김암우, 윤명근

---

---

# 각 판굿 해설

1	모듬굿	홀어진 농악단원들을 집합시키기 위하여 상쇠가 단마치로 올리면 전원이 모이게 된다. 전원이 다 모이면 2채 3채로 잇달아 넘어간다.
2	길굿	길군악은 행진굿이다. 행진굿에는 7채가락으로서 농기를 선두로 상쇠 이하 전원이 종대 행진을 한다.
3	인사굿	출연하면 관중석에 대하여 인사를 하게된다. 인사굿에는 3채와 5채가 연속되며 이어서 8채가락으로 넘어간다.
4	맞춤굿	맞춤굿은 인사가 끝난후 정돈을 하는 것이다. 맞춤굿 3채로 정돈이 끝나면 뒤로 돌고 왼 방향으로 다시 돌려 훈련하는 과정에서 7채로 연결된다.
5	문굿	문굿에는 여러가지 문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당산문 성문 판문이 있다. 농악에서는 남의 집 문을 들어서면서 문굿을 하게 된다. 2채와 3채로 이어지며 7채로 끝난다.
6	오방진법	오방진법은 예로부터 마당 네 군대를 東西南北으로 나누어 마당의 잡귀를 몰아내는 곳이다. 마지막에는 中央으로 모여서 징을 세번 울리고 다시 풀며 나온다. 4채, 8채, 10채로서 끝난다.
7	마당굿	일종의 마당굿 놀음이다. 늦은 춤 장단으로부터 덧베기 가락으로 이루어져 지며 다양한 묘기가 판굿에 있다 하겠다. 채로는 4, 8, 12채로 이루어진다.
8	호호굿	흥겨운 소리굿 2채로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며 전 단원들이 "호호" 소리를 지르며 갈 지자로 뛰면서 원을 돈다. 마지막 8채가 들리면 버꾸쟁이는 반대로 돈다.
9	우물굿	오방진법이 끝난 후 다시 전 단원들을 점호하여 상쇠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인원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놀이가 시작되면 상쇠가 가운데서 유도를 한다. 3채, 6채, 12채이다.
10	다드래기굿	춤 도드리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쉬우나 그와는 다르다. 3채로 시작하여 단모리 7채가락으로 넘어가며 전체 단원들이 일사 불란하게 일렬로 서서 몰아치는 가락이다.
11	농사풀이	농사 풀이라고 하는 것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기를 앞세우고 농부의 노작과 정을 나타내며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고 벼베고 타작하는 과정을 흉내내며 1, 2, 5로 나타낸다.
12	풍년굿	농사를 짓고 보니 시절은 호시절이요, 곳곳마다 풍년이라 농부들이 흥겨운 풍년가를 부르게 되니 춤이 저절로 추어지는 듯한 장단으로 풍년굿에 사용되는 것이 덧베기 4채, 8채가락이다.
13	버꾸놀이	버꾸는 소고보다 조금 큰 것이다. 소고는 단순한 약기라지만 그 묘한 기교는 춤을 위주로 한것이다. 진정한 버꾸놀음 즉 버꾸춤을 계승하여 소고 굿은 부산에서도 덧베기 장단가락 4채, 8채 넘어간다.
14	개인놀이	상쇠로부터 버꾸, 상모놀이, 대북, 장고놀이등 다채로운 개인놀이가 시작된다. 농악놀이의 표현방법은 부산농악의 북춤 놀이와 설장고 놀이이며 개인의 특기인 묘기를 재현한다.
15	열두발상모	12발이 되는 긴 상모로 노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각 지방마다 12발 상모라고 하는 놀이가 있으나 사실상 12발에는 모사라며 이 놀이에서는 정확한 12발을 2, 4, 8채로 돌리고 있다.